

## 식약청, 『사용제한 농약 기준』 대폭 강화

### 가지 등의 엔도설판, 배추 등의 클로르피리포스 기준 강화

○ ·남용 문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엔도설판과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농산물의 잔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27일 엔도설판은 사람이 섭취하는 모든 식용작물, 클로르피리포스는엽채류에 한하여 2004년 12월부터 사용을 제한해오고 있으나 해당농약이 사용제한 이전에 이미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식용작물 외에 사용으로 인한 오염 등으로 '05 ~ '06년에도 정해진 기준 이상 검출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밝히고 두개 농약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기준 강화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클로르피리포스의 경우, 배추와 양배추의 기준을 이미 1/5배 하향조정('06.12.1. 시행)하였고, 배와 들깨잎은 기준 1.0ppm을 삭제하고 0.01ppm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1/100배로 하향 조정될 예정('07.1.29. 입안예고)이다. 또 엔도설판은 가지, 고추, 딸기 등에서 많은 농산물에서 1/10배 이상 기준을 하향 조정한 기준(안)을 입안예고('07.1.29. 입안예고) 중에 있다.

식약청은 끝으로 이번 농약기준 강화조치는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기준강화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배농민이나 식품가공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신젠타, 신임 영업본부장 및 제품개발등록 본부장 임명

신젠타코리아(주)(대표이사 스티븐 호킨스) 신임 영업 본부장에 김용환 전 제품개발등록본부장이, 제품개발등록 본부장에 박귀두 전 제품개발등



김용환 영업본부장 박귀두 제품개발등록 본부장



록팀장이 4월 2일부로 임명되었다.

이번에 영업본부장에 임명된 신임 김용환 상무는 서울대학교에서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양화학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과 아그로사업본부 기술팀장을 거쳐 그동안 제품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또 김용환 상무의 후임으로 연구개발등록 본부장에 임명된 박귀두 부장은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방아그로 개발부, 제네카 코리아 개발팀을 거쳐 제품개발 등록팀장으로 근무해 왔다.

한편 그동안 신젠타의 영업본부장으로 일해 온 정진근 전무는 2007년 말까지 사장의 고문으로 일하게 된다.

# 작물보호協, 대소비자단체 농약안전성 강의 실시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출장요리 강좌생 80여명 대상

**한** 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도심지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성 강의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작물보호협회는 지난 3월 5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실시하는 '출장 요리강좌'에 참여,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약 및 우리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농산물 구입에서 특히 농약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 농촌진흥청 오병렬 박사는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개발과 안전성 평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절차 및 농약의 분해과정 등 다양한 예를 들며 흥미 있게 설명함으로써 참



석자들의 의구심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앞으로도 방송작가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신젠타, 「시건장치 보관 프로그램」 설명 위해 來協



작물보호제의 의도적 오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여러 나라의 자살예방협회, 정부기관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작물보호제의 시건장치 보관 프로그램」에 몇년 전부터 적극 참여해 오고 있는 신젠타코리아(대표이사 스티븐 호킨스)의 박귀두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4명이 지난 3월 15일 본회를 방문, 동 프로그램의 의

의 및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신젠타 본사의 고문의사인 Dr.Martin Wilks와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의 고문의사 Dr. Peter Loke는 “작물보호제는 정상적인 사용상의 문제가 아닌 의도적 오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농업 용도로서의 커다란 혜택이 무시되고 있다”면서 “작물보호제를 이용한 충동적인 자살 시도 등의 의도적인 오용 사례는 농가마다 시건장치가 달린 박스나 창고 등에 안전하게 제품을 보관함으로써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서사모아와 스리랑카에서 WHO와 해당 정부기관, 시민단체, 시판상 그리고 신젠타가 함께 공동 진행한 동 프로그램의 실례를 보여 주면서 간단한 최소한의 조치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효과는

## 성보화학, 신임 대표이사에 박종영씨 취임

### 부사장에 윤재동씨 선임

**성보** 화학(주) 신임 대표이사에 박종영 전무이사가 취임했다. 또 부사장에는 윤재동 일동통상 대표가 선임됐다.

지난 3월 20일 취임한 신임 박종영 대표이사 사장은 1950년 경북 대구 태생으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를 졸업하고 1974년 학군장교(ROTC 10기)로 군복무를 마친 후 성보화학(구 서울농약)에 입사, 생산담당 및 농약 Formulation, 원제합성, 정밀화학제품 합성을 해 온 농약 전문가이며 2003년부터 이사, 상무, 전무로 일해 오다 이날 사장에 취임했다. 또 같은 날 취임한 신임 윤재동 부사장은



박종영 대표이사



윤재동 부사장

1948년 경기도 개성 태생으로 1971년 한국 외국어대학 졸업, 1974년 Long Island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하고 올림포스 전자 뉴욕지사 부지점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2003년부터 일동통상 대표로 일해 왔다.

단순히 시건장치 달린 박스를 농가마다 제공한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정부기관, 시민단체, 시판상, 업계 등 각 단체가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 및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의 사용자 스스로의 앞선 의식 개선이라고 역설하였다.

WHO가 여러 기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작물보호제의 시건장치 보관 프로그램」은 2007년도 1월 BMC Public Health Journal에 발표되었다.

### 경농, 신규 수도용 액상제초제 3종 출시

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이 올해 신규 논잡초약 액상수화제인 ‘운수대통’, ‘일사천리’, ‘문전옥답’ 등 3종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되는 3종 액상수화제는 기존에 많이 사용해왔던 입제와 달리 300평당 500ml 한 병을 원액 그대로 살포하거나 액상살포기로 살포하는 생력형 제초제로 약



효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사용방법이 간편하여 약제 처리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저항성잡초 방제에도 효과가 우수하여 농가의 잡초방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수대통’은 피 뿐만 아니라 올방개, 너도방동사니, 벼풀까지 한번에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으며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 ‘일사천리’는 물달개비, 미국외풀 등 최근 많이 발생하는 저항성잡초에 대한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올미에 대한 효과

## 동부정밀화학, 신임 대표이사에 전대진씨 선임

**동부정밀화학** 신임 대표이사에 전대진(59) 부사장이 선임됐다.

동부정밀화학은 지난 3월 2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동부한농 경영지원실장인 전대진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신임 전 대표이사는 삼성항공 관리담당 상무, 한솔전자 대표이사 등을 거친 현장중심형 전문경영인으로 지난 2005년 4월 (주)동부 부시장으로 영입된 후 그해 6월부터 동부한농의

CFO로 활약해 왔다.

동부정밀화학은 이번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실속경영에 앞장 서온 전대진 대표이사를 구심점으로 동부정밀화학의 중기 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가 특히 우수하다. 또 ‘문전옥답’은 벼에 안전하여 안심하고 잡초를 방제할 수 있으며 물달개비 초기 2~2.5엽기까지, 피3엽기까지 방제가 가능하고, 가막사리 방제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 신젠타, 신제품 살충제 ‘프로클레임’ 출시

신젠타 코리아(대표이사 스티븐 호킨스)가 나방류와 총채벌레를 한꺼번에 방제할 수 있는 살충제 ‘프로클레임입상수화제’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프로클레임입상수화제(50g/1병)’는 채소류의 나방 및 총채벌레, 온실가루이등 문제 해충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고 진딧물, 응애 등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하며 특히 복숭아, 사과 등 과수원에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복숭아 순나방에 우수한 방제 효과를 보여 기존 약제로는 방제가 거의 불가능했던 줄기 속에 숨은 순나방까지 방제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이슈인 친환경 부문에 가장 근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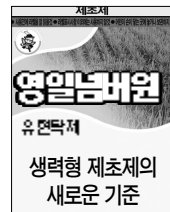
약제로서 작물 잔류 및 약해에 안전하며 특히 입상수화제 제형으로 과수의 유폴기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 아주 뛰어난 약제이다.

신젠타측은 “접촉독 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약량으로 강력한 소화 중독 효과를 나타내어 유충이 입을 가해하는 즉시 섭식이 중단되어 작물을 깨끗하게 보호해 준다”고 설명했다(고객상담전화: 1566-3889).

### 영일케미컬, 신제품 ‘영일넘버원’ 출시

(주)영일케미컬(대표이사 김용구)이 생력형 논잡초약인 ‘영일넘버원 유현탁제’를 출시하였다.

이번에 출시된 ‘영일넘버원’은 눈에 들어가지 않고 논둑에서 원액 그대로 직접 살포가 가능한 생력형 약제로서 저항성잡초에도 효과적이며 약효지속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방제가 가능하다. 기계이앙벼(어린모)에 이앙 15일 후, 10a(300평)당 500ml



## SDS바이오테크, 본회 준회원 가입

**(주)SDS** 바이오테크(대표 이영호)가 지난 3월 22일 한국작물보호협회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농약원제 원제공급사인 (주)SDS바이오테크는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준회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스미토모 화학아그로서울(주), 한국바스프(주), 에프엠씨코리아(주), (주)신영아그로, 아진케미칼(주), 다우아그로사이언스인터내셔널(주), (유)듀폰, 한국마간(주)에 이어 가입한 아홉번째 회원이 되었다.

이번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주)SDS바이오

테크의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8-14 코리아스터드빌딩 5층이며 전화번호는 02-558-5083/4번, 팩스번호는 02-552-50850이다.



한편 지난해 명칭을 변경한 한국작물보호협회는 2005년 11월 작물보호 산업 관련기업이 작물보호제로서의 올바른 이미지 제고와 농약 안전성 홍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회원 제도를 도입키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의 원액을 수면에 점적처리 하여 일년생잡초와 다년생잡초를 방제할 수 있다. 잡초발생이 빠른 지역에서는 처리시기를 앞당겨 살포해야 하며 잡초발생이 많은 논에서는 체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문의080-234-010>.

### 농자재판매 전문회사 「쎄라코」, 본격 사업 추진



작물보호제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판매 전문회사인 에프엠티코리아(주)(대표이사 이명재)가 지난해 설립, 출범한 「(주)쎄라코」가 본격 사업추진에 나선다.

‘For Better Life’를 슬로건으로 내건 「(주)쎄라코」는 전국 8개 지점 및 지사의 영업판매 조직을 구축하여 판매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 혁신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농자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사업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지난 2003년 1월 설립된 에프엠티코리아는 이미 2005년 11월에 제조사인 인바이오믹스를 인수하여 성장 동력의 계기를 마련한데 이어, 2006년 말 현재 작물보호제 37품목을 사업하는 농자재 판매 전문회사이다.

### 인사

- **성보화학(주)** △대표이사 사장 박종영 △부사장 윤재동
- **신젠타 코리아(주)** △영업본부장 김용환 상무 △제품개발등록본부장 박귀두 이사
- **스미토모화학아그로서울(주)** △부장 임용성